

2024년 겨울호

제 117호 2024년 12월 2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 이로다(시 148:13)

발행인 · 임현우 / 편집인 · 권순희 최하영 / 학생기자 · 장동원 문예은 조건호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 종강예배

서울대기독인연합 종강예배가 12월 2일 월요일 7시에 26동 B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 말씀은 박상혁 목사님(갈릴리침례교회)가 담당한다. 주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25-30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 주요 기사 안내

- 1면 간사칼럼 ... 조윤희
- 2면 중앙위원의 글 ... 정명현  
학생기자의 글 ... 문예은
- 3면 아가페 축제 성료, 하나님의 은혜 ... 편집부  
아가페 축제 대표 소감문 ... 이다은
- 4면 아가페 축제 상담부스 소감문 ... 김도진  
아가페 축제 금금증부스 소감문 ... 장유민  
아가페 축제 모루인형부스 소감문 ... 조건호
- 5면 아가페 축제 저녁팀 소감문 ... 김성은  
아가페 축제 홀리캠벳 소감문 ... 김지민  
아가페 축제 버스킹 소감문 ... 우진영
- 6면 아가페 축제 감사부스 참석 소감문 ... 신예원  
아가페 축제 저녁예배 소감문 ... 강다솔
- 7면 국제학생 수요모임 소감문 ... 이태훈/  
Acelina Mucache  
대의원 회의 소개 ... 장동원  
서기연 아침 기도회 소개 ... 박지우
- 8면 대학촌교회 50주년 연혁 ... 신승호

## 간사칼럼

**하나님으로 시작된 삶**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여전히 간사로 살고 있는가?' 관성으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지 않기에, 내 안에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음 마음을 떠올리면 복음으로의 불들림이 다시 한번 선명해집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생생해서 이 삶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삶이기에 하나님으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  
사실 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열심과 탁월함으로 살아갑니다. 바쁜 것을 미덕처럼 여기며 분주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들에 대한 일인데, 게으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이따금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할 때 자신의 능력 없음에 불안해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틈타 들어온 분주함과 불안이 마음을 깊어먹습니다. 이 조급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성취와 인정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섬기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성취와 인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기쁨으로 살던 삶은 단번에 고통으로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마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수고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도하지만 정작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하기에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괴로운본인 열심**  
하나님을 만나고 오랜 시간 고민했던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기쁨이었고, 이 기쁨은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꿈꾸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기쁨이었던 삶의 의미는 당위와 의무로 변했습니다.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 속에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명에도 홀로 지고, 함께 져야 할 주님의 명에도 홀로 지니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나는 작은데 너무나 큰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지친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시61:2)"  
다윗이 생명의 위협 속에 쫓길 때에 부른 시입니다. 다윗과 다르게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없지만 이상하게 쫓기듯 살아갑니다. 이미 얻은 생명을 누리질 못합니다. 이미 주신 자유를 스스로 거부하며 죄의 종노릇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갑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타는 듯한 갈증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보다 커진 것**  
하나님보다 커진 것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괴로운 줄 모릅니다.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을 통해 내가 영광 받습니다. 이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지만, 늘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해 왔기에 더 잘할 것을 기대받습니다. 그 부담에 스스로 짓눌립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닿을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결국 조금씩 지쳐갑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게을러집니다. 그 게으름의 끝에 은혜에 불들려 다시 눈을 뜹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서야 봅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컸고, 그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위뿐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

##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셨고 여호와와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삼상4:3)"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계를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배합니다. 문제는 언약계가 아닌 그들의 마음인데, 언약계만 있으면 승리할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착각이 체게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여는 습관이, 말씀을 보는 행위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증은 여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지만 전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행위만 남은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말씀이 싫습니다. 뭔가 깨닫고 발견해야만 할 것 같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지난 일기를 돌아보면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않아도 주신 말씀의 풍성함이 가득했는데, 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은혜와 깨달음을 쥐어 짜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까.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이것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바라실 텐데 왜 난 그것을 빼앗겨 살고 있는가. 대체 무엇에 빼앗겼는가. 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던 하루, 내 영혼이 살아 숨 쉬던 그날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간절한 소망을 부끄럽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은혜에 이끌리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다시 기쁨으로**  
이 과정을 참 많이도 반복합니다. 이제 반복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지만, 작은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얽드리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되새깁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능한 분이십니다. 크신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이루려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은 참 어렵지만 나를 만족케 하는 유일한 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꾸면서도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루려 했던 어리석음에서 돌아옵니다. 나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기쁨으로 누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을 나에게 맡기실 수가 있을까? 만약 내가 아이를 키워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면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중요하게 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같은 죄인에게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을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조윤희(CCC 간사, 대학촌교회 캠퍼스 선교사)

중앙위원의 글

다시, 중앙위원으로



안녕하세요. 2024년 2학기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명명현입니다. 여러분께 저를 중앙위원이라는 직함으로 다시 소개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교를 잠시 떠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학교를 누비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020년에도 중앙위원으로, 2021년에는 대표로 서기연을 섬겼었습니다. 위에서 '다시'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학부 생활을 온전히 즐기고 누리지는 못했지만, 서기연과 함께 보낸 서울대에서의 4년은 제가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부를 마친 저는 석사과정을 시작하기 전 군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8월 말, 전역 전 휴가를 즐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직 민간인이 되지도 않은 제게 어느 날 동역자인 친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중앙위 할 생각 없어?" 제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중앙위원이었기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름에 저는 그 친구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주님께 곧바로 여쭙보았습니다. "중앙위라니요, 이게 맞나요?" 고민의 깊이는 깊었지만, 그 시간을 길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의 저였다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4년 전 처음 중앙위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를 맡아도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대단히 교만한 마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 자리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자작에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행위의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실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중앙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위원으로 섬기게 되며 제가 누리게 된 축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추억입니다. 학교를 떠나 군에 있으며 그간 살아왔던 인생의 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여러 순간이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고 서기연도 그러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났던 귀중한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갔던 활동들이 제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위원으로 다시 섬기겠다고 했을 때 내심 그러한 추억을 한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그 바람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장소, 그리웠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둘째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아닌 여럿으로 있어야 하는 존재 같습니다. 무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으며, 문제가 닦혔을 때 한 사람만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중앙위원단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개성 넘치는 6명의 각자가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며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통해 사역을 계획하며 보내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연합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셋째는 기대입니다. 2024년 아가페 축제를 통해 저는 주님께서 서기연을 통해 서울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스에 들러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한자리에서 신앙적 질문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집회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를 준비한 서기연 지체들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주님께서 이 학교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에서 일어날 주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계획에 없었지만 그렇기에 더 흥미진진한 중앙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 인생의 2막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중앙위원으로서의 제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주를 '다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명명현(의교학전공 석사과정)

학생기자의 글

2년간의 진나빛 기자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입사를 이렇게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 3학년 2학기인 지금까지, 5학기를 <진리는 나의 빛>과 함께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시고 보듬어주신 편집부 여러분 덕분에 감사하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학기에는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 아쉽게도 기자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떠나는 마음으로 그동안 <진리는 나의 빛>에서의 경험을 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 기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점 중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를 준비하거나 취재할 때마다 제 신앙을 되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 바쁠 때는 기도나 QT를 쉽게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기자로서의 일은 그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지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신앙의 깊이가 자라났습니다.

제가 <진리는 나의 빛> 기자로 참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복학한 후 1학년 1학기, 영어 수업에서 장동원 선배님을 만나 그분의 소개로 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대학 생활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의 배려로 <진리는 나의 빛>에 합류할 수 있었고, 2학년 때는 기자와 중앙위원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면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처음 어려웠던 점은 원고를 부탁드릴 분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바쁜 분들에게 기고를 부탁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 많은 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제는 편안하게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기자 활동을 하며 제가 빠른 년생이라는 점이 의외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 다양한 학번과 나이의 분들과 만날 수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나 학번의 후배들과는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2023년 1학기, 이순중 목사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설교를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제 삶 속에서 서기연 활동은 언제나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의 포도주가 떨어지듯, 서기연 활동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워 주심을 구하며, 언젠가는 제게도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자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예배 중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 또 다 함께 행복해지는 모습을 찍어 신문에 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우리의 순간들을 나누고, 신문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좋아해주는 분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기자 활동 덕분에 서기연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제 감상을 글로 적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는 2022년 여름 MT에서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던 일입니다. 그때 함께한 성현, 의진, 진영, 주형, 하은이와의 인터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납니다. 그 친구들 중 일부는 지금 군 복무 중이고, 어떤 친구는 졸업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중앙위원과의 대화 코너를 진행하며 선배 기자님과 자문자답 인터뷰를 했던 것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 생활 중 감사했던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학년의 어린 기자였던 저의 요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간사님들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을 부탁드리며 장문의 메일을 보내던 시절, 그 답장을 받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기연의 리더로 섬기면서 그분들의 바쁜 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기자로서 부탁한 기고를 흔쾌히 수락해주셨던 신원식, 유사라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니, 어느덧 조금 성장한 제 사진 실력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이유로 제 곁을 떠난 이들도 있고, 졸업한 선배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길 소망하며, 최소한 천국에서는 반드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처음 기자로 임명되었을 때 적었던 초입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의 담담한 신앙 고백이 떠오르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퇴입사를 쉽게 쓰지 못한 이유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했듯, 말씀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은(산림과학부 21)

### 아가페 축제 성료, 하나님의 은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서울대기독교인연합에서 개최한 2024 아가페 축제가 성료되었다.

아가페 축제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을 퍼뜨리자(Let's spread the love vibe)는 취지를 바탕으로 열린 축제로 여러 해 동안 기도와 논의, 준비 끝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 자체가 잔치였던 만큼, 그분이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잔치=축제를 베푸는 행사였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

축제는 크게 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축제 부스였다. 궁금증부스, 상담부스, 감사부스, 먹거리 & 단체 소개 부스, 게임부스, 모루인형부스 등 여섯 개 부스가 학생회관 부근에 설치되었다. 캠퍼스의 학우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들부터 우리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부스까지 다채로운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흥미를 끌기 위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수백 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여, 일부 부스는 중간에

소품이 부족해 중간에 더 구매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둘째는 찬양 버스킹이다. 아가페 축제 홍보를 위해 졸업생·고학번 선배들이 나섰다. 30일 점심 시간 고성중, 김주영, 신화영, 우진영, 이탄일, 최하영, 추수원 등 총 7명의 형제 자매가 바쁜 일정 중에도 자하연 앞에 모여 찬양을 올렸다.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하나님의 세계" 등 11곡의 찬양이 학우들의 관심을 모았다.

셋째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여러 의문에 답하는 행사인 홀리کم벳이었다. 30일 저녁, 버들골에서 열린 행사는, 네 명의 참가자와 기독교 변증 전문가인 이정규 목사님(시광교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여러 궁금증과 오해들에 답을 했다. 많은 지체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민감하다 생각해 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답해내며 준비의 결실을 거뒀다.

넷째는 저녁집회였다. 1일 저녁 버들골에서 열린 행사는, 추운 날씨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이유로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많은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와 준비된

주보와 "진리는 나의 빛"이 다 나가기도 했다. 찬양팀 위러브(WELOVE)의 인도에 따라 다 함께 우리의 노랫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를 주제로 한 서창희 목사님(한사랑교회)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 캠퍼스의 학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 지역 사회의 기독교인들 등 최소 300명이 넘는 인원이 버들골 무대 주변을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린 일은 근 몇 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일이다. 이 은혜와 감격은 참석자 모두의 소중한 신앙의 기억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런 성과에는 몇 달간 이어진 기도와 여러 단계 및 개인의 후원, 준비가 있었다. 기도와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과 여러 지체의 헌신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서 만개한 자리였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질 형제자매들의 소감문을 읽어주시길 바란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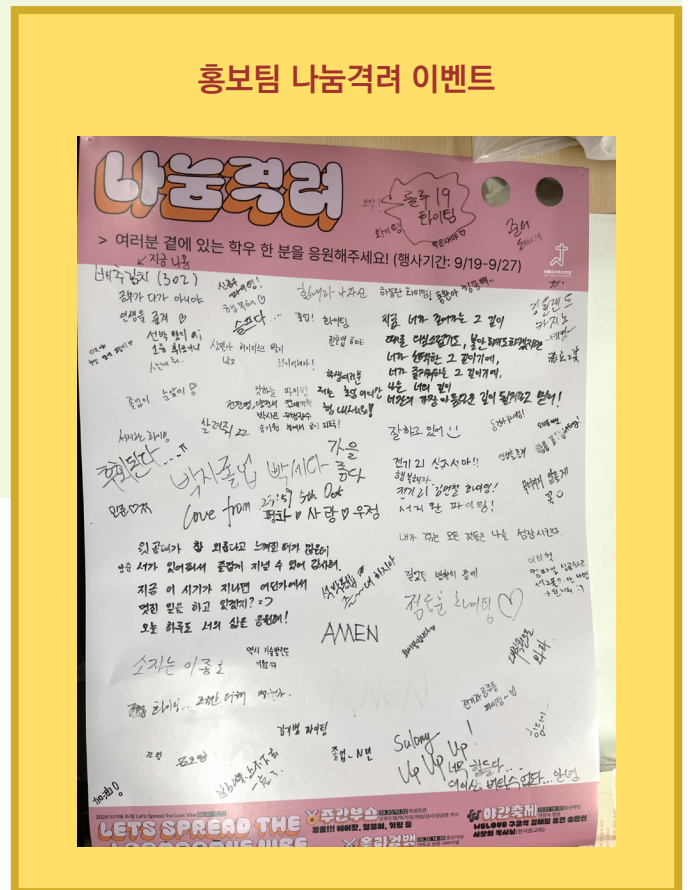
게임부스



먹거리부스



아가페 축제 추천 응모권



### 아가페 축제 대표 소감문



아가페 축제가 끝났습니다.

2월부터 7개월이 넘는 동안 서기연이 하나되어 함께 고민하고 세워나가는 축제를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재정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아닌 서울대에서 기독교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준비한 상품이 일찍 다 떨어지기도 하였고, 축제를 바라보며 기독교 신념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복음을 알은 자리에서 끝까지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캠퍼스 안의 이웃들을 조건없이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틔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리کم벳 행사를 통해 여러 질문들에 대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열린 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 캠퍼스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사랑받고 있는 최선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3일간의 행사가 서기연 지체들에게 깊게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보여주셨기를, 단체를 넘어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었기를, 그 추억과 사랑이 앞으로의 캠퍼스에서의 생활 가운데도 영향력있게 남아 숨쉬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재정으로, 기도로, 응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로 아가페 축제를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서울대에서 아가페 축제(혹은 다른 이름의 어떠한 축제)가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주제로 이끌어주시길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유일하신 주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다은(영어영문학과 21)

## 4 서울대 기독교회 소식지

### 아가페 축제 상담부스 소감문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상담부스에서 예수님으로 분장해 주실 형제님을 찾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상담부스 팀원 친구의 연락이었습니다. 지난해 초창기 기획에는 잠시 함께했다가 올해는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당일이라도 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도 기르고 있는데 9월 말까지 기르면 좀 더 예수님 같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수락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팀원분들이 예수님 역할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모으는 일만 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은 그제서야 깨지고야 만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주기, 말씀 읽어주기, 기도해주기... 교회 안에서는 몰라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막막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옷을 받아서 같이 입고 준비팀 분들과 예행 연습을 할 때까지도 제가 뭘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웠습니다. 말은 없어도 아마 옆에 있던 분들도 다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처음에 저를 섭외했던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자.”

제 막막함의 이유를 찾은 것일까요, 아무리 ‘작은 예수’라는 뜻의 크리스천(Christian)이라 불리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것도 처음 보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혼자서 끌어안

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찾아오는 이들이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들르고 또 필요한 이야기는 꼭 오갈 수 있도록 틈틈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잘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은 최대한 내어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현장에 나서보니 여간 이목을 끄는 분장이 아니었습니다. “플로라이드 사진 찍어드려요.” 하는 말은 벽에다 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 두 명, 믿는 사람이 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찾아왔을 때 함께 말씀을 읽고, 특히 성경이 낯선 분들에게는 이를 쉬운 말들로 설명해주는 일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즐거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소망과 힘으로 사는지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스 운영진인 저보다도 서글서글하게 대해주던 방문객 분들, 이웃 모루인형 부스 팀원분들, 학교를 방문했다 부스까지 오게 된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걸 세심히 준비해주셨던 우리 부스 팀원분들까지 많은 분들과 행복한 기억이 남았습니다.

끝나고 나니 격경과 달리 하나님께서 입에 할 말과 푸근한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스를 통해 제가 바라는, 누구에게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복음을 소개할 줄 아는, 삶의 축소판을 살아본 것 같았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마당이 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김도진 (전기정보공학부 22)

### 아가페 축제 공금증부스 소감문



안녕하세요! LDI와 예혼에 소속된 아동가족학과 장유민입니다. 이번 아가페 축제 전도-공금증 부스팀으로 참여한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아가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올해 초 서기연 대의원회의였습니다. 학부 때부터 LDI 공동대표로 섬기면서 3-4년 정도 회의에 참석해 왔는데, 그동안 많은 서기연 행사와 안전들을 논의했지만, 서기연 소속 모든 단체가 함께하는 규모 있는 행사 중 내부 행사가 아닌 믿지 않는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전도 축제를 기획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 학위논문 심사를 준비하며 어느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긴 했지만, 그동안 서울대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은혜의 자리에 꼭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자 전도 축제를 기획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 학위논문 심사를 준비하며 어느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긴 했지만, 그동안 서울대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은혜의 자리에 꼭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준비 과정에서 자주 모이진 못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변증해야할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지체들을 보며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축제 당일에는 다른 팀 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을 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가페 축제를 처음 기획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가장 많이 수고하신 이대은 대표님과 중앙위원, TF팀 분들께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기연에서 ‘연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부터 ‘이렇게 서로 다른 단체들 간에 연합이 가능한 한 길일까’까지, 특히 COVID-19 시기를 거치며 어두워지는 논의의 방향에 공동체적으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가페 축제를 통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지키는 본질은 ‘복음’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혼자 할 수 없기에 서로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연합에서 나아가, 우리만의 축제가 되는 건 아닌지, 학우들이 무관심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실제로 변증 내용이 담긴 판넬을 뽀뽀하며 한참을 읽다 가는 사람들, 이것저것 질문하는 사람들,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화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믿지 않는 학우들과 유학생들, 평소 고민이 많았던 크리스천 학생들, 서울대에 방문한 학부모님과 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과 성경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이세에도 있습니다. 들려주면 들을 사람들이 서울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서기연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장유민(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아가페 축제 모루인형부스 소감문

아가페 축제에 참여한 일원이자 모루인형 부스팀으로 섬긴 산림과학부 24학번 조건호입니다. 모루인형이란 철사나 금속으로 모양을 내고 털이나 다양한 소재로 꾸며 만든 인형을 말합니다. 모루인형 부스를 통해 아가페 축제에서 섬기게 되었기에 부스팀으로 섬기며 느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루인형 부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열린 기독교 축제인 아가페 축제를 통해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권유로 부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모루인형 부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스팀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시작한 사역 준비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차근차근 계획을 짜고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재료와 부자재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모루인형으로 만들 수 있는 동물을 정하고 메뉴얼과 순서를 정했습니다. 부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학과 소속이자 다른 단대기원,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 되어 서울대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 함께 힘쓰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 주시고 예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날과 둘째 날 모두 많은 분들이 모루인형 부스를 찾아주셨습니다. 가볍게 인형을 만들고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학부생, 대학원생, 유학생, 캠퍼스 투어를 온 중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모루인형을 만들고 가셨습니다. 모루인형을 만들며 부스에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점이 참 감사했습니다.

모루인형 부스의 특성상 참여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으며 세일 클로버 모루인형을 만들며 그 안에 담긴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아쉽게도 참여자분들께서 세일 클로버를 많이 고르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루인형 부스를 통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페 축제의 메시지인 “Let's spread the love vibe”처럼 부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캠퍼스에 퍼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루인형 부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캠퍼스에 퍼뜨리기 위한 연결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퍼뜨릴 수 있었다는 것, 주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셨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여자로서 다양한 부스에 참여하기도 하고 홀리캠뻬트와 저녁 집회에도 참석하여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부스팀으로 직접 섬길 수 있었기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동역자분들, 부스에 참여해주신 분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주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서울대학교에 퍼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건호(산림과학부 24)

아가페 축제 저녁팀 소감문

MISSION: 예수님 깨우지 않기

제게 아가페 축제는 마치 풍랑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힘든 길이 될 거라 예상했겠지만, 저는 저녁 팀을 맡으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대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녁 팀은 '확정'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섭게 없어진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저녁이 찬양집회로 꾸미려고 했지만 첫날 저녁이 인플루언서 초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 섭외가 쉽지 않자 결국 첫날 저녁은 홀리캠벳이라는 도전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가페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당시에도 홀리

캠벳 참가자는 1명뿐이었고 TF 팀에서는 첫날 저녁을 진행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안건으로 올라오곤 했던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의 주일 설교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가복음 4장 35~41절 말씀입니다. 바다의 풍랑에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막 4:38 중)"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태연하게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 역시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8:26 중)" 저는 이 책망을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되기 싫어서 대체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냐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며 말씀을 나누던 중 배가 가라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말들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

들과 다를 바 없구나.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생각과는 다른, 배가 가라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드린 지 4시간이 되지 않아 나머지 참가자 세 분이 채워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던 순간입니다.

이 외에도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 등 첫날은 물론이고 다음 날 야간 축제(집회) 역시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맞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들 또한 나누고 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듯해 이 정도로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자락이나마 전하는 데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김성은(수리과학부 21)

홀리캠벳 소감

홀리캠벳(내 안의 영적 싸움)에서 홀리캠벳(세상과의 영적 싸움)으로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아가페 축제에서 기독교 변증 행사인 <홀리캠벳>의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나는 결코 참가할 일이 없겠다'였습니다. 긴장되는 무대에서는 것을 싫어하는 저였고, 저의 신학적 지식과 말씀씨에 자신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7~8월 경, 그 당시의 저의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학업과 사역의 병행 속에서 번아웃을 겪은 뒤 찾아왔고, 마음 깊은 곳에 꼭꼭 눌러왔던 하나님을 향한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질문들이 튀어나와 그분과 씨름해 오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중순쯤 되어 행사 관계자로부터 홀리캠벳에 참가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장 심장이 두근거렸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괴롭히신다는 생각에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보낼 만한 이를 보내소서'라고 답하였습니다. 비록 새 학기를 시작하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받은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이 행사에 대한 생각이 한 구석에 자리 잡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은 계속해서 외면하라고 소리쳤고, 청년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내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를 사용할 기회를 잡고자 하는 마음은 도전해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약 일주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저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이 도전을 망설이던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제 마음 가장 깊은 기저에는 그저 내 체면이 구겨지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단했습니다. "망신을 당해도 내가 망신당하지 예수께서 망신당하시겠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계시옵소서."

자아를 깨뜨리는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더욱이 신앙을 걸고 기독교를 향한 질문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홀리캠벳을 준비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보는 연습을 하면서, 지난 수 개월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주님과 여러 질문을 두고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정리해 온 저만의 답변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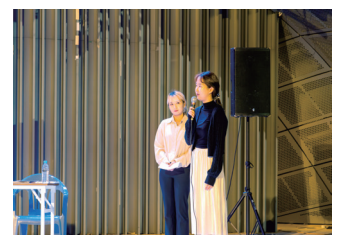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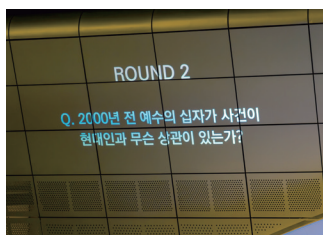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 악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를 알 수 없었던 자들의 구원 여부, 유한한 죄에 대한 무한한 지옥 형벌의 부당함.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없는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활용하여 답변해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답변이 관객들에게 만족할 만

한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비크리스천 관객들에게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부터 변증은 논리적으로 비크리스천을 설득하여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닐 뿐더러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번 홀리캠벳과 같은 변증의 자리가 하는 역할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비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반지성주의자들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소통의 창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리고 동시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자극하는 촉매 작용과 자정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홀리캠벳을 시작으로 서울대 안의 크리스천들은 더욱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의 질문에 대해 준비하며, 비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역사의 일부로 미천한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김지민(물리천문학부 18)



아가페 축제 버스킹 소감문



9월의 마지막 날, 자하연 앞에서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가페 축제의 행사 중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여러 찬양들을 학교에서 함께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날씨도 좋다 못해 햇볕이 뜨겁기까지 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누가 들을까 걱정했던 순간들이 무색하게도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찬양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공개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장난식으로 "이러다 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농담을 하고는 했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미워해서 거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세상이 가지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이 찬양을 통해서 단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걸로 성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예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서, 찬양을 통해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잘 선택해야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뭘까 고민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의 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 주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복잡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누리고 온 셈이 되었습니다.

아가페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버스킹이었습니다. 또 함께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버스킹 팀에서 멋진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 행복했고, 아가페 축제를 함께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진영(영어교육과 22)

아가페 축제 감사부스 참석 소감문



안녕하세요. 아가페 축제 감사 부스에 참여한 경영학과 24학번 신예원입니다. 제가 감사 나무에 써서 붙였던 감사 제목은 “이 축제를 즐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아가페 축제는 정말 기쁜 잔치였습니다. 제가 꿈꾸며 기도했던 서울대 캠퍼스의 모습이 현실로 펼쳐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캠퍼스를 두고 기도하면서도, 하루하루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매마른 캠퍼스와 바쁘고 지치는 학업 가운데 캠퍼스 복음화라는 소망은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축제를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기뻐한다면, 캠퍼스 복음화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아가페 축제를 하는 동안 자하연 앞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고, 학생회관 앞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벚꽃골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축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가페 축제를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 부스에 방문했을 때,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던 스태프분이 기억납니다. 강의가 곧바로 있어 마음이 조금 급한 채로 부스에 참여했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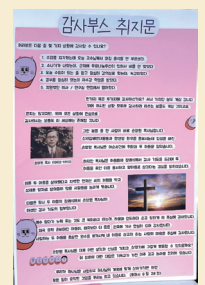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 부스 외에 다른 부스에도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스태프분들의 밝은 모습이 또 다른 은혜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섬김으로 나누고 계신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저도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 나무를 보니 저마다 다른 은혜가 담긴 감사 제목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 제목으로 꼭 찬 나무를 바라보며 저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방 책상 위에는 글귀가 적힌 갈피 하나가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글귀로, 저의 어머니께서 적어주신 것입니다. 자주 들여다보고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것인데,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이조차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글귀처럼 감사에는 힘이 있어서 작은 일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분명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둘러싼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내어주었던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불안은 내려놓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행복과 평안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 부스에 계셨던 모든 분의 얼굴이 환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감사 부스를 통해 저는 하나님이 이 캠퍼스에 품고 계신 소망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감사 제목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풍요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저는 감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일과 같다고 느낍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귀한 기회로 감사 부스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예원(경영학과 24)



아가페 축제 저녁예배 소감문



이번 개강 예배는 10월 1일, 아가페 축제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LET'S SPREAD THE LOVE VIBE라는 구호로 축제가 진행되었던 만큼 예배 역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찬양과 메시지, 기도가 연결되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 설교에서 한 사람교회 서창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은

“자기 사랑이 매우 중요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전해 주셨다.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부족하고 어떤 기준에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줘도 결국은 다시 절망에 빠지는 굴레에 빠져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신입생 때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전보다 나의 부족함이 더 잘 보이고 그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에, 그 말에 깊이 동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돌아볼 수 있었다. 우리의 사랑의 불완전함은 어떤 면에서는 비극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더듬게 한다는 점에서는 희소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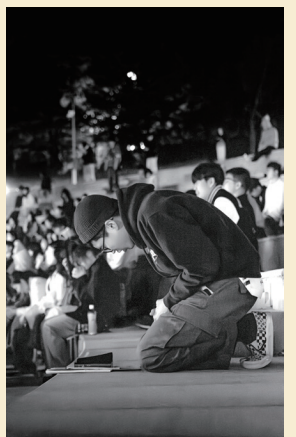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사랑인지는 WELOVE의 ‘시간을 뚫고’를 함께 찬양하며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시간을 뚫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 허무, 교만, 사랑 없음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 그렇게 오셔서, 힘 없고 꿈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려 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짐 가운데서’를 찬양하며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라고 선포한 것처럼 영원하고, 그렇기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혼자 찬양을 들으며 따라 부를 때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서울대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는 서울대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입학하고, 졸업하고, 부임하고, 퇴직하면서 왔다가 떠나가고, 또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예배가 끝나고도 서울대에 계

시는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모두가 학교에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만남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다. 합심 기도를 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함께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길 원한다.

벚꽃골에서 진행된 예배는 해가 진 후 바람이 많이 부는 춥고, 어두운 곳에서 진행되었던 예배였지만 학생, 교수님, 찬양팀, 목사님 모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2시간에 걸친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손을 들고 일어나 찬양하고, 말씀은 필기하며 듣기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고 열망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다시 일어나’를 부르며 고백했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라는 말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기를 되었고 믿으며, 그렇게 추위와 어둠이 크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서울대학교 크리스천들을 따뜻한 온기와 밝은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강다솔(영어영문학과 19)



국제학생 수요모임 소감문



안녕하세요. 저는 보진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태훈입니다. 이번 9월부터 시작된 관악사 국제학생 수요모임(이하 ISO-WF)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임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ISO-WF는 관악사에 거주하는 국제학생들의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 동아리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ISO)에 소속된 크리스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와 친교를 갖는 모임(Wednesday Fellowship)입니다. 매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영어로 말씀을 듣고,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자

리가 마음이 갈급한 국제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유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팀과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교수님들과 캠퍼스 사역자들, 학생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감사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신 말씀(마태복음 28:19-20)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8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있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되새깁니다. 비록 작은 시작일지라도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창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서울대에는 2,597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약 38.5%가 관악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120여 개국에서 온 이 국제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각자의 나라와 민족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교수님들과 학부 및 대학원 생들, 그리고 사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이 더욱 많은 유학생들에게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학업과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실만한 물가'와 같은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가 4:1-2, 개역개정>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태훈(보진대학원 박사과정)



My name is Acelina Mucache, from Mozambique. I recently graduated with a Master's degree in Landscape Architec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 preparing for PhD admissions. When the opportunity arose to join the Wednesday Fellowship praise team, I

hesitated. Having just graduated, I felt uncertain about my future in Korea. However, as part of the church's praise team and with a heart that loves worship, I prayed, asking God, "Let it be more of You and less of me." Unsure, I prayed for guidance, I asked that if He

wanted me to serve, He would show me a clear path. Miraculously, the very next day, one of the professors organizing the fellowship reached out, inviting me to join the praise team. When I later received the role of worship leader, I realized how leading worship at Wednesday Fellowship has been a profound blessing. Wednesday has become a refreshing pause, a time for us all, especially students and professionals facing intense schedules, to set aside the pressures of the week. This fellowship offers a space to renew and find peace in God's presence.

Each week, the messages have been profoundly encouraging. For instance, the pastors reminded us of the promise in Isaiah 40:30-31: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reminding us

tha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Also, reflecting on Psalm 23:1, reminded us that the Lord is our Shepherd, guiding and caring for us as a coach, friend, and navigator through life's challenges.

These messages have reminded me of how, just as small communities form strong bonds to support each other, we as a fellowship are bound together by the blood of Christ, forming a spiritual family. Together, we are learning to rely on God as our ultimate strength, wisdom, and peace. Through this time of worship and fellowship, I've experienced God's presence more deeply, and I am grateful to be part of a community that is both supportive and spiritually uplifting.

Acelina Mucache(조경학과 석사과정 졸업)

대의원 회의 소개



서울대기독교인연합에서는 매월 서울대 내 사역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대부분의 서기연 구성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어 제게는 즐거운 장인 대의원 회의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의원 회의는 매월 1회, 월요일에 개최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지난번 회의에서 정해집니다. 참여하는 자격인 대의원은 서기연에 등록된

모든 선교단체 및 단과대학 기독교인연합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대의원이 아니라도, 대의원 회의에 관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미리 연락하고 참여하여도 좋습니다.

회의는 6시 반에 학생회관 4층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되는 대의원들은 5시 반에 미리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회의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며 총 2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개·종강 예배 사역 역할 분담, 예산안 검토, 지난 행사 피드백, 행사 관련 광고사항 전달 등이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를 통해 서기연 사역을 다 함께 은혜롭고, 부담 없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과 참여로 더욱 풍성한 대의원 회의와 서기연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동원 (인기연 대표,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서기연 아침 기도회 소개



안녕하세요.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중앙위원 항공우주 19학번 박지우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군 복학을 하며 중앙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앙위원을 하게 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힘입어 이 자리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기독교인 연합의 존재의 의미와 의의도 잘 알지 못한 채 이 자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기연 아침 기도회를 통해 기독교인연합에 대한 마음

을 키워갔습니다.

먼저 성경 두 구절을 나누려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골로새서 2장 1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은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는지 알고, 그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들어 부탁했습니다.

서기연 아침 기도회에서는 소속 단체들이 돌아가며 기도회 인도를 맡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단체의 기도 인도를 따라가며 잘 와닿지 않던 다른 단체들의 기도 제목과 필요가 와닿았습니다. 문자로만 보았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던 기도 제목들이었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지체의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숨소리마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다르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며 제가 훈련받은 선교단체를 넘어서 다른 단체들이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훈련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연합내의 다른 지체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고,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얼굴을 모르는 서기연 지체들을 얼굴을 마주하고 각 단체의 구체적인 필요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반경을 벗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서울대학교와 기독교인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지우(항공우주공학과 19)

대학총교회 50년 연혁

**태동(胎動) 1964-1970**  
자생적 학생운동이 일어난다

1964-1970 기독교학생운동  
문리대(동승동), 공대(공릉동)  
1967 공대교회 건립  
1972-1974 서울대복음화 기도모임  
(광화문 교육회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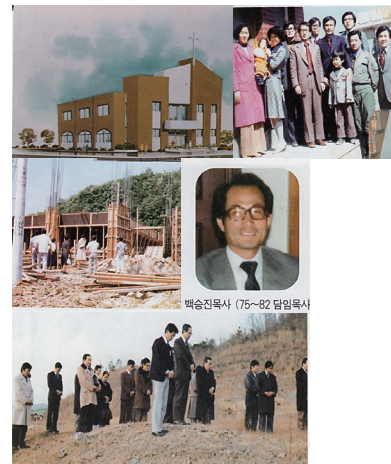
**고고(呱呱) 1974-1975**  
신림동에서 첫발을 떼다

담임목사: 이진태, 전도사: 오성중  
제작회: 이종웅, 유은상, 이완수, 김광채  
1974.11.24 교회설립(신림사거리)  
1975.1 대학총소식 창간



**정주(定住) 1975-1983**  
교회 건물을 건축하다

담임목사: 백승진  
1976 부지 매입(현 교회)  
1979 시공  
1980 성가대, 청년 대학부 조직  
1981 서울대 선교장학회 설립  
1983 헌당



**설립(設立) 1983**  
교회의 체계를 세우다

임시목사: 이진태  
전도사: 송시남, 박영범  
1983 대학총 교회 헌법 제정  
서울대 기독교교회 정관 제정  
당회 구성  
장로: 유은상, 성기문  
1984-1987 설교목사: 김철현, 김영재,  
김성수, 서철원



**안정(安定) 1988-1991**  
설립멤버가 복귀하고 청년들이 헌신하다

담임목사: 이상직  
전도사: 김경연, 박봉규, 김연수,  
박성일, 김주식  
캠퍼스 선교사: 이준근, 이영록  
장로: 신승호  
1988 제자학교 개교  
평신도 중심의 책임 분담  
문서선교(도서출판 대학총)  
1989 교회재산 선교회명의 등기  
1990 신앙생활관 개관  
1991 사랑의 벽돌 쌓기(대학총빌라)



**시도(試圖) 1992-1998**  
수련장 설립과 해외선교에 진력하다

담임목사: 오성중  
전도사: 진석원, 박형대, 이재환, 김명애  
캠퍼스 선교사: 박정숙, 길정순, 이은미,  
김선미  
해외 선교사: 이준근, 전영심(연변),  
윤수길(태국)  
장로: 한도교, 이대권, 강구태, 김대진,  
김성현  
1994 진리는 나의 빛 창간  
대학총교회 20년사 발간, 영어예배  
1995 상주 수련장 기증(김진애)  
사택 및 생활관 매입  
1996 대학총선교회 법인 인가, 전도폭발



**확장(擴張) I 1998-2006**  
교회 출신 첫 담임목회자가 부흥을 이끈다

담임목사: 박영범  
부목사: 심정란, 최은상  
전도사: 박형대, 김명애, 안용준,  
이은미, 백보람, 김선미,  
박해진, 신요한, 양우준,  
김정형, 배형선, 이봉성, 이재환  
캠퍼스 선교사: 김성현, 양현숙, 이준근,  
전영심, 최경아(서울대학  
교회 파견)  
1999 예수제자 기본훈련 시작  
대학총선교회관(현 교육관) 매입  
2001 서울대 선교 후원 및 기도의 밤  
2002 성서한국 수련회  
2003 주차장 부지 매입  
2006 인격변화과정 시작



**확장(擴張) II 2007-2016**

담임목사: 박영범  
전도사: 강덕영, 유태호, 김경희,  
임현우, 진용준  
캠퍼스 선교사: 오주연, 이지애,  
이지형(목자), 김성현,  
양현숙(우간다 파견)  
장로: 강영훈, 최병운, 도명정, 노형재,  
문병철  
2009 평신도 대학 시작  
2011 대학총학당 시작  
자매생활관, 고시생활관 운영  
2012 교회비전문 공표  
2014 교회발전기획위원회



**전환(轉換) 2017-2022.8**  
체계적 훈련 과정을 도입하다

담임목사: 박형대  
부(교육)목사: 엄희광, 임하수, 정형석,  
이성호, 임우열, 홍성진  
전도사: 양현숙, 김경희, 이지형, 임우열,  
윤유미, 신영미, 김은택, 노명시  
캠퍼스 선교사: 박영범, 양현숙, 정성순, 지호선  
장로: 김인섭  
2018 온가족 새벽기도회  
원문학교 영어예배(4부)  
2019 일대일 양육, 성경통독  
2020 진리는 나의 빛 100호  
2022 대학총 선교센터(그들) 개관



**합심(合心) 2022.8-2023.12**

임시당회장: 성기문  
설교목사: 김영련(2023.1~2023.12)  
설교: 이두희, 임현우, 강연준, 김형동,  
유지은, 백충현, 김태섭, 유태호,  
김정형, 최지승, 권연경, 임귀복,  
김상현, 김요섭, 한병수, 최승근 등  
2022 선교센터 기독교콘서트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설립 48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아(發芽) 2024**  
다음 세대, 새 시대가 시작되다

담임목사: 임현우  
부목사: 임우열, 홍성진  
전도사: 김경희, 윤유미  
캠퍼스 선교사: 양현숙, 정성순, 조윤희, 지호선  
장로: 성기문(원로장로), 이승복, 장영길  
2024 예배형식 일부 변경  
대학총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출범

